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이 다들 경험했듯이 초반에는 고된 훈련과 새로운 조직 생활에의 적응으로 힘들어하고, 후반에 몸이 좀 편해질 쯤에는 지루함과 사회에 대한 고립감으로 힘들어했다. 제대한 후 공부를 계속하던 중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두 가지의 두려움을 지루함과 고립으로 분석한 정보사회학자의 글을 읽고 꽤나 공감했었다. 최근에는 연구년으로 1년 간 외국에 가 있을 때 또 비슷한 경험을 했다. 고무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다가 갑자기 놓아버려 늘어진 고무줄 한쪽을 붙잡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느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이것저것 들춰보다가 이게 아니지 싶어 돌아보니 지루함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의 초상이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밤마다 인터넷으로 하고 살았고, 인터넷 없이는 못살 것 같았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CIH 바이러스에 걸렸고, 그때부터 서너 달은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산책하며 보냈는데 인터넷 없이 살았던 이 시기가 정말 보람된 날들로 남아있다.

막스 베버는 지루함에 따른 불안은 산업사회의 청교도적 근검성에서 연유하며 그에 반하는 행위는 현대사회의 죄악으로 평가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는 지루함과 고립이라는 불안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관심영역을 넓혀간다. 과거에는 관심영역이 집단적이고 계급적이었다. 그래서 그 충족수단의 하나였던 신문도 계층적 이익을 대변하는 양식이었다. 오늘날에는 관심영역이 개인화되면서 취미형태로 변화하였고 오늘날의 신문이나 텔레비전 역시 다양한 관심영역을 충족시켜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대신하여 현대인이 불안으로부터 탈출하고자 사용하는 매체로서 인터넷이 지니는 매력적 잠재성을 대단하다. 범세계성, 멀티미디어성, 일상성 등등. 또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이다 사회적 효용성을 생각하면 인터넷만큼 현대인을 매혹하는 수단은 없다. 사실 인터넷이 지니는 여러 매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 어느 대학의 커피숍 사이트나 남에게 보여주기 좋아하는 캐나다 아주머니의 잘 치장된 거실 컬렉션 사이트 같은 일상적인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력이 바로 패러독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한 인터넷이다. 정보는 참 많고 많은데 정작 필요한 정보는 찾기 어려운 정보의 패러독스 현상.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이 통합되어 만들어내는 인터넷의 개인적 수용과정과 사회적 수용과정은 아날로그 매체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보다 정신적 측면과 관계되는 정보기술을 보면 지루함-관심-매혹-적극적 수용-실망의 단계를 밟아가며, 보다 사회적 측면과 관계되는 통신기술을 보면 고립-연결-매혹-적극적 수용-해방의 단계를 밟는다. 인터넷의 경우 지금 매혹과 적극적 수용의 과도기에 있으며, 적극적 수용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 효용성 향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걸릴 때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독일 지식인들의 TV 시청 거부 현상이 늘어간다고 한다. 실망할 것인가 아니면 매혹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인터넷 시대의 화두이다.